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찬구인문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충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린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 1:21)

대한예수교 **충헌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3 충헌교회 THE WEEKLY CHŒ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이항수

신년 설교

그 길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삽나이까"(요 14:4-5)

2004 신년감사예배

2004년 1월 1일(목) 오전 9시(1부) · 오전 11시(2부), 본당에서

김성관 목사

그 길을 아는가?

이 세상의 사람들 중 자신들이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도마처럼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삽나이까?" 저 자신 역시 언제 어디서 마지막 호흡을 내뿜질런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인간은 누구나 인생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을 자든지, 싸움을 하든지, 휴식을 취하든지, 심장은 계속 뛰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서 어디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짜고 모든 것이 잘 되기를 기대합니다. 모두 모두가 정말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자신이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합니다. 도마는 삼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은 도마가 그 길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도마는 "나는 그 길을 모르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오늘 우리는 새로운 해 2004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들떠 있고 새로운 각오를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도마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 길을 어찌 알겠삽나이까?" 이 질문이야말로 참으로 심각한 실존적인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다. 신자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길은 매우 혼란스럽고 복잡한 수박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을 배로 불러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함하는 것도 보았던 자들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제자들이 그 마음을 슬픔과 스트레스와 두려움에 빠졌던 사실입니다. 자신들이 잘못한 길로 접어들 것은 아닌지, 혹은 인생을 잘못 투하한 것은 아닌지 하는 두려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왕이 되시기를 기대했고 또 망명하길 그렇게 되어서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막상 그 길로 가지지 않으심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나가는 곳에 네가 지금 가는 따라 올 수 있느냐?"(요 13:36). 베드로는 다시 묻습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떠날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까?"(요 13:37). 예수님은 다시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요 13:38). 예수께서는 베드로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베드로가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나 실상은 마귀의 길을 좇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심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했고 많은 이

적을 체했었습니다. 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 곁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더러 그 길을 모르기 때문에 나를(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인생의 길을 가르쳐 주려는 종교가 많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듯 싶어하는 종교적인 위선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온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바로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주신 대답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제자들이 길 되신 예수님을 잃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씀을 드립시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만 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곧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그 길"을 확실하게 설명해 주고 또한 보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갈등과 질투와 증오가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높은 명성과 많은 재산과 찬란한 성공을 꿈꾸며 바쁘게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교만합니다. 거짓된 가르침은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들입니다.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던 말입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그러나 사람들은 도무지 주님의 말씀을 믿어서 못합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진리요." 그러나 인간들은 주님의 말씀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은 이 문제에 관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앞과 산과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라 너는 믿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사슴을 많이 두르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리켜 험한 말이기를 좇으리라"(딤후 4:1-4).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노라"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그 메시지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고 심각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싶었던 바울의 간절함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딤후 4:5). 한 걸음 더 나아가 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 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딤후 4:7-8). 여기서 보여주시는 '인생의 여정'이 곧 "그 길"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 길을 걸었습니다.

좁은 길, 십자가의 길

바울은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무시하고 쓰레기 버리듯 버렸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참으로 자기 자신을 온전한 반대로 하나니게 되었습니다. 그는 인생이 걸어야 할 그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달려온 그 길은 참으로 전리의 길이요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자신이 그 길을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다메섹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울을 좁은 길,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여 주었고, 바울은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따라서 걸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외로운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진리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길은 곧 믿음의 길이요 은혜의 길입니다. 이 길에 있을 때에 성경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길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결코 자기 자신이 영광을 받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길로 행합니다. 그러나 이 길은 영생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 길의 길에는 찬란한 영광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만이 소유한 특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며, 또 영적인 눈이 떠져서 영광의 길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2004년도 제1차 성찬식

다음 주일(1월 4일) 1부에서 5부 예배 시에

LORD'S SUPPER

(23)For I received from the Lord that which I also delivered to you, that the Lord Jesus in the night in which He was betrayed took bread; (24)and when He had given thanks, He broke it, and said, "This is My body, which is for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1 Corinthians 11:23~24)

Before we come to the Lord's Table, we have to clean our hearts. We need to examine ourselves, and confess our sins because Jesus' body and blood interact with us in a deep relationship. His church, the body of Christ, has to keep the Lord's Supper, worship, and praise holy. As such, His church should encourage all believers to participate in a worthy manner. Therefore, when you take the bread and cup to proclaim His death, as is required, "For as often as you eat this bread and drink the cup you proclaim the Lord's death until He comes," take them with a refreshed heart.

At the Lord's Table, there are no dead people, only living people can attend. The invitation is restricted to believers only because Jesus is alive! Thomas would not believe that Jesus had resurrected until he could touch Him. When he finally met the resurrected Jesus, he said, "My Lord and my God"(Jn. 20:28)! He recognized the full deity of Jesus Christ. We need the same faithful, evangelical attitude when we come to the Lord's Supper. If you do not have a clean heart, you are dead. To come to His Table you have to be a living Christian who can proclaim, "My Lord and my God." The entire world is watching how you approach His Table. Your heart must reflect the real gospel. What does a gospel heart look like? It looks pure and beautiful because the blood of Jesus has cleansed it.

Clean hearts need to show the Lord appreciation. As you take the bread and cup from the Lord Jesus, what is your attitude? When you take His body and blood, you must be grateful and thankful for His grace. You have to be excited and pleased! You cannot be inconsiderate, uncaring, and superficial. This is a serious, very serious, time of worship. Participating in Holy Communion is an exciting and wonderful event. The appreciation in your heart should be overflowing with admiration and sincerity. Those who are frivolous in the taking are making a big mistake. The Lord's Table is a Christian privilege that always needs to be highly regarded. Come prepared,

come humbled, and come earnestly.

As a believer, this wonderful Table is unavoidable. When we become God's children, His people, we become part of the body of Christ, where all believers gather in praise, worship, and service. Concerning His Table, Jesus Commands,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Do you want to disobey? No way! Jesus clearly says, "I am the bread of life; he who comes to Me will not hunger, and he who believes in Me will never thirst"(Jn. 6:35). Jesus wants us to come to Him and receive spiritual food. Believers need to take this spiritual food, for if they do not take it they will die. Who, as a believer, would refuse? Paul even warns us, "For this reason many among you are weak and sick, and a number sleep"(1 Cor. 11:30). If you take the Lord's Supper properly, with holiness, then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will be upon you, and you can witness Christ to the ends of the earth (see Acts 1:8).

My dear friend, at the Lord's Table your sins will be forgiven, and through Jesus' sacrificial death He will give you redemption and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What an amazing blessing! Is your heart excited, filled with joy and appreciation? Do you have a deep relationship, solid union with Jesus Christ? As you come to His Table today, through His death, He will lead you to the cross, to His empty tomb, and to His resurrection. What an exciting journey. What a perfect future. Come now and proclaim His death, for He is alive. He is your wonderful mediator. Through the cross, we have new life. At this Lord's Supper, if you have lost the real meaning, you have lost all future blessing. Paul boldly asserts,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t is no longer I who live, but Christ lives in me; and the life which I now live in the flesh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up for me"(Gal. 2:20). Amen. Your eternal future in Christ is so wonderful and exciting. Please join the Lord's Table, and seriously consecrate this time of remembrance with praise, worship, and obedience. 

주의 만찬



김성팔 목사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고전 11:23~24)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 일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하고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만찬에서 우리는 주의 몸을 먹게 되고, 주의 피를 마시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주의 만찬을 반드시 거행해야 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고 찬미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의 만찬을 베풀면서 신자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바른 태도로 주의 만찬에 참여하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전 11:26)라는 말씀을 따라 오늘 우리가 주의 죽으심을 전하기 위하여 떡과 잔을 받을 때에, 여러분이 새롭게 된 마음으로 떡과 잔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적인 마음으로 나아오라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은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고 영적으로 살아 있는 사람들뿐입니다. 주의 만찬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오직 신자들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아 있는 신자들만 이 만찬에 초대된 것입니다. 열 두 제자 중의 한 사람이었던 도마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자기 손으로 직접 만져보지 전까지는 결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서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니이다”(요 20:28)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참되고 복음적인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의 마음이 정결하지 않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하려면, 여러분도 도마처럼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니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만찬에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하늘의 천군천사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복음적인 마음이어야만 합니다. 복음적인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아서 순결하고 아름다운 마음! 바로 이것이 복음적인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심정으로 나아오라

정결한 마음으로 주의 만찬 앞에 선 다음에는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주의 만찬에서 주 예수님으로부터 떡과 잔을 받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먹고 마실 때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야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살과 피를 주셨다는 사실로 인한 감동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경솔하거나 부주의하게 또는 가벼운 마음으로 주의 살과 피를 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시간을 주님을 경배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만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감동적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탄과 진실한 마음으로 넘쳐흐르는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살과 피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은 큰 잘못을 행하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은 기도와 신앙에서 매우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준비된 마음으로 나아오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오십시오. 진지한 마음으로 나아오십시오.

주의 만찬을 피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라면, 누구나 이 만찬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함께 모여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예수님은 만찬식을 만들어 주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24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데도 여러분은 성찬에 참여하고 싶지 않습니까? 주의 만찬으로 나아오십시오.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요 6:35).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자신에게 나아와 신령한 음식을 받아먹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신자라면 누구나 예수께서 주시는 이 신령한 음식을 먹어야만 합니다. 이 신령한 양식을 먹지 않으면 그들은 영적으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찬을 받지 않으려고 하시겠습니까? 바울은 성찬을 함부로 대하는 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잠잠한 자도 적지 아니하니”(고전 11:30). 이와 반대로 만일 여러분이 주의 만찬을 합당하게 받을 경우,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이며 여러분은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행 1:8 참고).

신령한 복을 제공하는 만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죄는 주의 만찬에서 사함을 얻을 것이고, 예수께서는 자신의 대속적인 죽음을 인하여 여러분에게 구원과 성령의 권능을 주실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기쁨과 감사로 가득 채워지며 뜨거워지고 충만해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모든 것, 견고한 연합을 이루고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의지하고 오늘 주의 만찬에 참여한다면, 예수께서는 여러분을 자신의 십자가로, 빈 무덤으로, 부활로 기꺼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여행입니까? 이 얼마나 완벽한 미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의 만찬으로 나아오십시오. 그의 죽으심을 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은 여러분의 위대한 중보자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은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하면서도 그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장래의 모든 축복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바울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영원한 미래는 찬란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우리 함께 주의 만찬에 참여하십시오. 주님을 기억하는 이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순종과 함께 하나님께 바치도록 합시다. ■

장로 칼럼

선교와 기도로
시작하는 2004

이종석 (장로, 선교·기회위원장)

주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을 앞두고 교회는 지난 주일 (12월 21일) 저녁 찬양 예배 시 벵엘·고동부 찬양대와 오케스트라가 《메시아》 1부 중 몇 곡을 찬양하여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매 주일 5부 예배에도 그렇지만 성실한 마음과 공교한 입술로 드리는 잘 준비되고 헌신된 찬양은 우리 모두를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먼 길을 찾아온 동방의 박사들과 같은 심정으로 인도하며 천사들이 전해 준 성탄의 의미를 새기게 훌륭한 시간이었습니다. '아! 주님, 당신은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라는 진실한 고백과 진한 감동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밀려오듯 소리지르 나왔습니다. 마치 생각하고 많이 준비한 듯한 독학자의 익숙함과 성실함,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박사 한 박사를 모박 모박 깊이 있는 합창대원을, 설교자와 동일한 심정으로 합창대를 지휘하는 지휘자, 오케스트라 대원들, 오르가니스트 등,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이루어진 육성의 숲, 그 중심에 《예수님》이 세웠습니다.

2004년에도 지난 해와 같이 우리 교회는 단기선교로 시작합니다. 90년도 후반부터 꾸준히 부서별로 단기선교를 진행해 오다가 2002년부터 전 교회적으로 단기선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2004년으로 3년 째를 맞습니다. 그 동안의 모든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놀라운 발전을 기대할지 모르지만 우리로서는 변화하기보다 오히려 지금까지의 원칙을 다분 분명하게 하고 싶은 편입니다.

선교지로 나가는 우리 모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마 28:18-19)라는 주님의 선교 명령에 대한 말씀과 "헬라인이나 아만인이니 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내가 빚진 자라"(눅 1:14)라는 빚진 자의 심정을 해 마음에 품고 목장하며 선교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죽은 자에서 건지시고 생명을 주시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우리는 감사한 나머지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복음의 빛을 갖기 위해 선교지로 달려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단기선교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몇 가지 소망을 품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단기선교는 전 교회적인 일임으로 교회 내의 모든 사역들이 동참하여, 서로를 돌아보며 가운데 있는 일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는 선교위원회의 일이고 이나 그 모든 위원회가 연합해서 해 나가야 될 전 교회적인 중추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피차의 협력과 도움이 절실히요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야 3년 차에 들어선 단기선교 사업의 힘을 얻어 나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단기선교를 통해 지금까지도 그랬던 것 같이 온 교회가 영향을 건지려는 열심으로 가득 차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개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을 맡겠 누리고, 우리에게 땅 끝까지 가라고 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홀로 보내지 않고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앞으로의 신앙생활에 더 큰 열심과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중요한 것은 2004년도의 우리의 선교의 방향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고 성령님만을 의지하는 선교로 마치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의 선교와 같이 진행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 선교 현장에서 선교 사역의 오해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서주시고 그리고 살인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 광대한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미 선교자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지역을 피하고, 전도지 외에는 현지인들의 마음을 끝 미더한 불꽃도 가져가지 말고, 주를 위한 음식도 절제하고, 관광도 금하고 일체의 선물이나 소령도 금하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이는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잘 이해하고서 좋은 마음, 감사한 마음,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설레는 마음으로 선교에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라고 하는 나라에 가고, 그분이 만나게 해 주시는 사람을 만나고, 그분이 먹으라고 하는 음식을 먹고, 그분이 자라고 하는 곳에서 자는, 모든 것을 주님의 위탁하듯 그 분만을 의지하는 선교, 바로 이 일 때문에 우리가, 전 교회가 선교로 나가고 있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게을리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선교 현장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바라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자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광대하시다고 지혜

가 뛰어나시며 능동하시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004년도에는 작분 여하, 연령 여하, 소속 여하를 막론하고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새기지 않겠습니다. 팀 구성을 연초에 끝내고 잘 준비하여 선교지에 갈 수 있도록 교육훈련에 집중할 것입니다. 팀장도 안수집사에서 장로, 목사, 권사까지로 확대합니다. 1월부터 계속적인 파송이 이어질 것입니다. 모든 준비는 차근차근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선교의 대열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든가, 보내는 데 물질과 기도로 후원을 하든가 하여 한 사람도 구경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우리 교회는 《예수 십자가 복음》의 특장 위에 선교라는 새로운 특징이 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 복음 선교》가 충원교회를 상징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기획위원회의 우리 교회의 5대 목표인 예배, 교육, 전도, 선교, 구제가 잘 진행되게 하기 위해 전 교회화 하나가 되고 힘을 합하여 나갈 수 있도록 교회의 모든 구직구직을 살피며 당회 산하의 여러 기관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유기적으로 잘 움직여 가도록 도와 조정하고 협의하며 원칙을 정하고 계획하는 부서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예수 십자가 복음》에 맞게 연경 행사 계획 예산을 수립 하기도 하고 교회관련 규정의 제정, 개정 등의 업무를 하기도 할 것입니다. 또한 매 주일 발간되는 《주간 총원》을 통해 온 교회가 복음적이고 생명 살리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간증, 말씀의 전파자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합니다. 또한 위임 목사님의 주일설교라고 다 교회학교의 성경공부 교재를 편집, 제작하는 《교제연구회》에서 주일 교재 뿐만 아니라 계절학교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온 교회가 한 목표, 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일은 온 교회와 온 성도들의 관심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교회의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시작된 '권사 24시간 기도'가 이제 만 4년을 채웠습니다. 그 동안 온 교회가 권사님들의 끈질긴 기도의 빛을 접했습니다. 이제 교회의 중직자들이 기도하는 일로써 시위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장로와 안수집사들이 '24시간 기도'에 동참하라고 합니다. 기도의 불길이 끊이지 않는 교회로, 늘 기도하는 교회, 늘 기도하고 있는 중직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또한 매 주일 오후 4시 10분부터 모이는 선교기도회에도 기도의 불이 불어 타르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이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 전 힘을 쏟아 나갈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의 5대 목표인 예배, 교육, 전도, 선교, 구제를 바르게 해 나가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향해 바르게 나아가기 위하여 전체적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한글 바로 하고 바로 쓰기, 예배 및 집회에 참석하기, 직분자 바로 세우기, 복음적인 방향으로 교회의 규정들을 고치는 일입니다. 사실 이런 일은 성도의 가장 기본 의무에 속한 일들입니다. 이런 일을 잘 행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고쳐 나갈 것입니다. 이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신앙을 강요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강요가 아니라 그 이상을 하더라도 교회가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진정으로 교회가 교회답게 되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나간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바로는 교회, 진정한 성도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만 섬기고 예수님만 자랑하며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전력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늘 조심스럽습니다. 행이 본말이 뒤바뀌어서 복음적인 삶, 복음 증거의 사명일 바쁘지 않은 것들을 늘 생각하게 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오로지 겸손한 마음과 순종하는 자세로 감당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매 주일 시간마다 예수님 탄생의 의미를 되새기며 참으로 은혜로운 12월을 보냈습니다. 지난 성탄절의 메시지가 주님 탄생의 소식을 듣고 자신들이 처한 양 때를 들뜬에 남겨두고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베헌례대로 달려갔던 목자들의 성경이 되어 세태에는 주님이 깨신 곳, 주님이 부르시는 곳이라는 단언에 의해서 우리들의 믿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달려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에 대하여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말씀(마 26:11)을 늘 가슴에 새기고 생각하면서 한 해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까지 이리되오 하나님을 그를 거룩히 높여 모든 자들로 하여 위하여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되나니라"

2004년도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2004 총현 단기선교 CMTC 및 언어훈련 개강 안내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사 49:6)

주님의 지상명령에 따라 열방에 나가 복을 전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2004년도 총현 선교훈련 프로그램이 아래와 같이 년 중 상설 운영되고 있으며 모든 성도들은 CMTC 훈련과 관심있는 언어분야를 신청하여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당일부터 교육에 참가할 수 있으며, 교육훈련의 참가신청은 단기선교팀 구성과 관계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1. CMTC 실시 (2주 코스)

가. 일시: 2004. 1. 4(주일) 부터 (오후 6:10~8:20)

나. 장소: 갈릴리 홀

다. 대상: 2004년도 단기선교를 지원하는 전 교인 및 관심 있는 성도
라. 운영 및 내용

- 1) 총현 선교훈련(CMTC)은 2주 과정(4시간)으로 한다.
- 2) 개설: 1월, 2월, 3월, 5월, 6월, 9월, 10월(첫째,둘째 주일 / 18:10~20:20)
- 3) 방법: 강의 및 질의 응답
- 4) 운영: 1일 2시간을 한 단위로 하여 일별 수강을 원칙으로 한다.
- 5) 수료: 2일 4시간을 수강한 사람에게 수료 확인증을 교부한다.
- 6) 수강료: 1인당 10,000원(언어훈련 포함) / 학생 5,000원
- 7) 내용

주별	1 교시	2 교시
첫째 주	선교의 성경적 기초	총현교회의 선교정책
둘째 주	타종교의 이해(선택식) 1. 정교, 카톨릭 2. 회교 3. 힌두교 4. 불교	세계 선교의 흐름과 영적 상황
*개설 일:	1월(4일, 11일), 2월(1일, 8일), 3월(7일, 14일) 5월(2일, 9일), 6월(6일, 13일), 9월(5일, 12일) 10월(3일, 10일)	

3. CMTC 및 언어훈련 신청접수

가. 접수처: 선교위원회 ☎ 552-8200, 구내 356-8 및 각 훈련 장소

나. 신청 당일 부터 교육참가 가능

다. 수강료: 신청시 10,000원 납부(언어훈련 및 CMTC 포함)
학생 5,000원

4. 각 교구 지역장은 단기 선교팀을 구성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접수처: 선교위원회 ☎ 552-8200, 구내356-8)

나. 팀원의 자격

- 1) 교회 등록하고 출석한 지 만 1년이 지난 세례교인(부서장 추천)
- 2) 공직회 출석, 심일조 생활을 하는 사람(교구장 추천)
- 3) 해외 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법적)
- 4) 신체에 결함이나 이상이 없는 사람(건강진단서)
- 5) CMTC 및 팀 훈련을 마친 사람(면접심사 통과자)

* 2003년도 교육을 수료한 자도 반드시 2004년도 CMTC교육을 수료하여야 함.

6) 1인 1명 이상 전도한 사람

7) 교회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갖지 않은 사람

다. 각 팀장은 2004년 1월 말까지 선교 대상국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언어 훈련 실시 (8주 코스)

가. 일시: 2004. 1. 4(주일)부터 선교지 언어 (오후 3:20~4:00), 영어 (오후 6:10~7:00)

나. 대상: 2004년도 단기선교를 지원하는 전 교인 및 관심 있는 성도

다. 내용:

- 1) 복음전도를 위한 언어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기초 생활, 복음제시)
- 2) 기초 언어는 인사 정도, 복음제시 언어는 25개 문장을 정확한 발음으로 암기하는 정도이다.

라. 개설과정 및 일정

- 1) 과정: 8주 과정
- 2) 개설 기간: 1~2월, 4~5월, 7~8월, 10~11월
- 3) 시간: 매 주일 오후 3:20~4:00(영어는 매 주일 오후 6:10~7:00)

마. 개설언어 및 장소

언어	시간	강의실	언어	시간	강의실
몽골	15:20~16:00	제1교육관 301호	우즈베키스탄	15:20~16:00	제1교육관 204호
러시아	"	베다니홀	방글라데시	"	제1교육관 304호
루마니아	"	제1교육관 305호	*캅카시아	"	제1교육관 206호
중국	"	제1교육관 201호	*미얀마	"	제1교육관 408호
카자흐스탄	"	제1교육관 202호	*리소스	"	제1교육관 409호
인도	"	제1교육관 307호	*파키스탄	"	제1교육관 410호
우크라이나	"	제1교육관 205호	영어(초급)	18:10~19:00	베다니홀
스리랑카	"	분당112호	영어(중급)	"	분당 112호
볼가리아	"	제1교육관 207호	영어(고급)	"	나사렛홀
베트남	"	제1교육관 403호			

* 캅카시아, 미얀마, 리소스, 파키스탄은 Tape으로 대해 강의합니다.
강의실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타 지역은 언어 훈련 강사 확보 및 추이를 보아 상설화 한다.

★ 지난주 도착한 선교팀

기 간	선교지	팀	팀 장
12월 16일(화)~12월 24일(수)	L	6교구 8지역	조석구

★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기 간	선교지	팀	팀 장
12월 22일(월)~12월 30일(화)	D	16교구 3지역	이상범
12월 22일(월)~12월 31일(수)	D	8교구 3지역	안노수
12월 22일(월)~12월 31일(수)	D	7교구 5지역	전계식

★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기 간	선교지	팀	팀 장
12월 30일(화)~1월 10일(토)	D	1교구 10지역	구원섭

* 선교위원회 형식으로 인하여 국기명은 밝히지 않습니다.

◆ 2004년도 외선부 교사 모집

외선부에서는 독립 예배팀이 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교사가 부족합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모집국가: 몽골, 독립국가연합, 중국,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인도, 방글라데시, 이란, 필리핀, 베트남 등

모집기간: 주일 10:00~15:00

문 의: 외선부 (내선: 456, 457)

지원자격: 세례교인 이상, 차량으로 봉사할 수 있는 분도 환영광주, 의정부, 안산, 김포 외

♡ 교구 안에서 만난 예수님 ♡

오직 말씀으로

천수답

"어호와 하나님께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더라"(창 2:5).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마치 우리의 상태를 설명해 놓은 것 같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내리주시지 않으면, 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악한 것들과 부패한 것들을 제거해 주고 고쳐주지 않으면, 선한 것을 스스로 생산해 낼 수가 없는 메마른 땅! 우리가 그러하지 않은가! 우리는 날마다 하늘로부터 내려는 은혜의 비를 공급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메마른 땅이다. 예를 들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운데 살았다고 해서 오늘도 자동적으로 경건한 삶을 척척 살아갈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못하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 마음에 은혜의 비를 내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들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이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의 이런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인정하며 살아야 하겠다. 흔히 세상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나는 잘 할 수 있다. 나는 성공할 수 있다"라고 자기 암시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다.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존재이다"라고 겸손히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 15:5). 큰일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기쁘게 주시지 않으면 선한 일을 전혀 행할 수 없는 우리임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사모해야 하겠다. 비록 우리 자신은 메마른 땅이지만 은혜의 생인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시지 않은가! 언제라도 구하여 물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샘이 하늘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천수답이다. 우리 자신은 메마르나 언제든지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메마른 땅과 같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을 기억해 보자.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나..."(겔 34:26-27). 얼마나 귀한 약속인가! 얼마나 든든한 약속인가! 그러므로 이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하자. 우리 각 사람과 온 교회에 하나님의 이런 은혜, 즉 메마른 땅을 축복이 적시주시고 열매 맺도록 하시는 이런 은혜가 임하도록 간구하도록 하자. 복된 장마비로 우리 마음이 흠뻑 젖어줄 때까지...

(편집국)

주님이 주신 하루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삽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욥 42:4-5).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세상이 아름다울 수 있고 빛보다 환한 주님의 음성이 있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천 일보다 주님의 하루가 있기에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려고 몸소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이 땅위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 생명의 은혜를 입어 영원한 예언의 동산을 바라보는 은총을 주셨기에 주님이 허락하신 하루가 감사합니다. 그러하기에 세상에서의 폭풍폭은 견딜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안주함이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셨기에 당신께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여! 우리 마음이 곤고할 때에도 주님께서 "너는 나를 위해 승리할 수 있겠니? 너는 나의 십자가를 기억할 수 있겠니?"라고 물으실 때에 대답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소중한 미소를 잃을지라도 주님이 계신 하루가 있기에 기도합니다. 새 아침의 해가 떠오릅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시간 속에서 주님만이 기억될 수 있는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잔잔히 들려주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마음을 활짝 열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밝은 미래가 있게 하시되 곳곳마다 주님의 참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거룩하신 형상을 닮게 하시어 어두운 곳에 환한 등불로 비추도록 찬양과 경배로 준비하겠습니다. 진정 만민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도록 복음의 선물, 사랑의 향기를 노래하겠습니다. 찬양과 경배의 주님이 계신 하루가 있기에 행복합니다.



심금숙(집사, 6교구)

♫ 다음 주일 찬송

283장 "주 앞에 성탄 받기 위하여"

이 찬송은 영국 교회의 주교인 에드워드 헨리 비커스테스(E. H. Bickersteth, 1825-1906)가 1872년에 쓴 성탄 찬송가이다. 주제를 강하게 부각시키는 시작 표현이 아름답고 순수한 리듬에 실려 생생한 감정을 준다. 주님의 삶과 피를 먹고 마시므로써 새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에 감격하며 떨리는 심정으로 부르는 찬송이다. 우리는 이 찬송의 고백처럼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철저하게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희생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성탄 예식에 참여해야 한다.

이 찬송의 곡 프레이드릭 쿡 에트킨슨(F. C. Atkinson, 1841-1897)이 1870년 "폐저물어 날 이미 어두나"(한 531장)의 찬송곡으로 작곡한 것이다. 에트킨슨은 브래드포드 매닝엄(Manningham)의 성 누가 교회 오르가니스트요, 성가대 지휘자로 있었으며 많은 전례 음악과 찬송가 및 기악곡을 남겼다.

- 1절: 주 앞에 성탄 받기 위하여 이 죄인 감히 나아옵니다.
주 공로 밍고 떨며 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 2절: 죄 괴로 니가 방황했으니 주 앞에 감히 돌아옵니다.
자녀 될 자격 내게 없어도 주 나를 용납하여 주소서.
- 3절: 한탄만 주의 음성 들어도 그 말씀 내게 능력 되어서
이 세상 마귀 유혹 이기고 원수의 비방 막게 됩니다.
- 4절: 온유한 주의 음성 듣고서 죄인은 와서 쉬임 얻으며
성도들 함께 참여하여서 배부른 잔치 막게 됩니다.
- 5절: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오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

(찬양위원회)

새·가·족·을·환·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1505	이성미	1 청년2부	1514	조성아	19 고동부	1523	고은실	19 청년1부 조성훈(15)
1506	고선	6 청년2부 김영숙(8)	1515	목영진	19 고동부 권도형(11)	1524	김경철	19 청년2부
1507	이석하	9 장년1부 조귀영(9)	1516	박수영	19 대학부 박보람(8)	1525	윤병희	19 청년2부
1508	유현민	17 장년1부 김삼희(18)	1517	권지웅	19 대학부 박보람(8)	1526	양모라	19 외선부 정숙자(10)
1509	이기원	17 장년1부 김삼희(18)	1518	채정원	19 대학부 박보람(8)	1527	조크콜라	19 외선부 정숙자(10)
1510	안성열	19 사랑부	1519	이준수	19 대학부 이시재(14)	1528	사라	19 외선부 오은경(10)
1511	나명진	14 청년1	1520	김현태	19 대학부 정국승(5)	1529	권수인	15 마리아
1512	민현기	19 사랑부	1521	최대혁	19 대학부 변영희(6)			
1513	김예정	19 사랑부	1522	신명희	17 청년1부 조성훈(15)			

※ 송진교회와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년 2003년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요”

김진미 (중동1부 교사)

“한 아기가 낳네 마구간에 동방의 박사, 별을 보고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어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12월이 되면 우리 아이들이 즐거부르는 찬양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이 찬양 한 곡에 다 담겨져 있는 것같아 저도 좋아합니다. 또 어렸을 적 성탄절을 준비하기 위하여 동네 목재가에 있는 교회에 열심히 다녔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 때는 어렸기에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보다 공주 옷을 입고 예쁘게 화장하고 찬양과 율동을 하는 제 모습을 어른들께 보여주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죄인 된 우리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다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은 아직도 또렷하게 생각납니다. 많은 시간이 지난 요즘의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셔야만 했는지, 그러므로 나의 신앙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 지를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렸을 적, 주님날 호호 소리를 불러 교회를 다녔던 그 때보다 믿음의 분량이 더 적으니 어찌 된 일인지요?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제 아이들과 제가 속해 있는 중동1부 면교회 학생들을 보면서 많이 긴장하게 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매년 습관적으로 맞이하고 보내던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그 진정한 의미에 대해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 모두에게 가슴 벅찬 감격으로, 온 맘을 다해 부르는 찬양으로 안겨지길 원한다고요. 또한 계익과 초와 폭죽을 준비하고 선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크리스마스 행사가 아니라, 별을 보고 먼 곳을 찾아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린 후 아기 예수께 경배하였던 동방박사의 열심과 순수한 마음을 꼭꼭 챙겨서 드리고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저 또한 그것들을 아기 예수께 꼭 드리고 싶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눅 2:10).

예수님 닳기를 소원합니다

박소혜 (중동3부 교사)



2003년도 한 해가 거의 다 지나가고, 벌써 성탄절을 맞은 것이 정말로 신기합니다. 중동3부 편집부 친구들과 함께 지낸 시간이 벌써 1년이라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와서, 아이들을 놓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지 않은 시간들이 아쉽습니다. 요즘은 편집부 모임 시간에 아이들을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을게, 아이들을 잘 살겼을게, 하나님이 아이들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개발하고 꿈을 주었을게’ 하는 생각들이 가득합니다. 아이들이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꿈꾸며 자라야 하는데, 나의 부족함이 혹 그것들을 방해하지는 않았을까 두렵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능력 있으신, 영광로우시며, 만왕의 왕이신 아기 예수님이 초라하고 더러운 유류에 누이신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밤을 생각합니다. 그 분의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디시는 것이었습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아파한 수고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말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가 나타나실 때에 서둘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벧전 5:3-4).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랍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본이 되며 남을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늘 하나님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행동을 하면서도, 제자들을 주님과 혼동해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양무리의 본이 되셨던 예수님은 정말 멋진 분이십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신 예수님을 닳고 싶습니다.

아이들은 꿈을 꾸는 것만큼 자랍니다. 사랑하고, 믿고, 소망하는 만큼 반응합니다.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하고, 더 많이 믿고 기대하여 주지 않으니 미안하고 아쉽지만, 모든 일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님의 계획 안에 중동3부 편집부 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고, 나의 삶도 그 분의 선하신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시작하신 착한 일을 이루실 것을 기뻐 때문입니다.

날 위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기를 기뻐하셨던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기쁨이 우리 중동3부 친구들 모두의 삶에 날마다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 손해일까?

이진향 (중동2부)



이번 기말고사 기간에 예배드리기 위해 교회를 갔던 것인지, 아니면 당장 있을 수학 시험을 위해 교회까지 말고 공부할까 고민이 되었습니까. 갈등 끝에 교회에 가기로 결정을 했지만 발견은 무거웠습니다. 주일에 공부하면 몇몇 더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머리 속에 맴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손해라고 생각하는 것같이, 저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저에게 손해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날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그런 저의 생각이 잘못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말씀 중, 헤롯왕은 예수님을 믿으면 피해를 입을까봐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손해라고 생각하며 믿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말씀을 통하여 한가지 더 알게 된 것은 성경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에 대해 ‘축하하자, 놀라자’라는 말은 없고, 다만 ‘나를 기뻐하라’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성탄절은 친구들과 먹고 노는 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뻐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학 성적은 마음에 들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일에 예배드리기 위해 공부를 더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공부를 조금 더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믿음의 학교에서

십자가(눅 23:26~49)

“...여루살렘의 딸들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28절).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정작 마음 아프고 가슴 찢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그들의 앞 날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울음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죄에 대한 통회의 눈물이었습니까. 이 여인들은 죄없는 한 인간의 처참함을 안타깝게 보고 울었지요. 그날의 길에 서신 예수님의 약함을 보고 온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도 예수님의 약함만이 보인다면, 우리의 영적인 눈은 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약함에 대하여 연민만을 느끼고 있으면, 십자가의 중요한 진리를 놓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약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큰 구속의 사랑의 힘으로, 그날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주님은 연민의 대상이 아닌 경배의 대상이십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33절). 복음서 기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단순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육체적인 비극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육체적인 고통을 연상케하여 종교적인 감정을 복돋우며, 슬픈 모습과 마음을 지어내어 십자가를 슬픈 대상으로 보기를 권하고 있지는 않나요? 물론 처참하고 애똥합니다. 그러나 우리 십자가 앞에서 먼저 슬퍼하고 애똥해야 할 이유는 따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찢든 우리 자신의 모습과 자신들의 죄로 고통을 당할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올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먼저 울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먼저 보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34절). 결코 위대한 말씀이십니다. 어떠한 원한과 분노도, 저주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랑의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작게는 십자가 밑에 있는 자들을 말씀하시고, 크게는 인류 전체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요 19:30) 하고 함께 낙원에 이르러라”(42-43절). 종교적인 형식이 매여 살고 있는 자들을 무척하게 하는 장면이지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나라에 초청받은 일은 아무런 형식이 아닌 규정도 없는 즉각적이고 단순한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구원은 나의 행위가 아닌 그를 보아주시는 말씀이십니다. 감격적인 장면이지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요 19:30) 마지막 승리의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신포도주를 입술을 적시었습니다. 이 말씀을 안하셨다면 미련한 인간은 그분의 죽음을 선택해 볼 수 있었으니까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내 구원에 관한 내 내가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할 일은 구원의 감격으로, 그 하나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그 분을 위해 사는 길뿐입니다.

(현향일 기자)

교회소식

◆ 공동의회

일 시 : 오늘 찬양예배 후
대 상 : 세례교인 전원

장 소 : 본당
안 건 : 2003년도 결산 및 2004년도 예산

◆ 2004년도 전반기장학생 신청안내

1. 선발대상

- ① 본 교회 등록교인으로 2001년 12월 30일 이전 등록자
 - ② 본 교회 교회학교에 재적중인 고·대·대학원·신학대학원 학생
 - ③ 공매체와 교회학교 부서의 집회에 참·참석하여 교회 각 부서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자
2. **신앙기간** : 2003년 12월 28일 ~ 2004년 1월 11일
3. **신앙장소** : 교육국 4. **문 의** : 교육국 ☎552-8200 4272, 473)

◆ 교역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 헌신예배 (1월 7일, 수요일 2부 예배)

지난 해부터 시작된 부처님 한신예배를 2004년 부터는 매달 첫째 주일이 지난 수요일 예배로 드림다. 새해를 맞으며 첫번째로 (교역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 한신예배)가 1월 7일, 수요일 예배로 드려짐다. 특히 2004년 부터는 바른 한신을 다짐하며 한신예배 시 헌금시간을 갖기로 하였습다. 해당되는 사람들은 모두 참여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2004년에도 한신과 중생을 다짐하는 (의지) 시간을 바랍다.

◆ 2004년 교사교육 및 겨울 계절학교 강습회

주 제: 침으로 예배하는 자들
일 시: 2004년 1월 14일(수)~15일(목) / 19:00~22:00
장 소: 본당 및 교육관 대 상: 제1·2교우위원회 교사 및 참가회당자
내 용: 만나 지도법, 거울교재 워크, 학생 지도법, 2004 반목회 전략

◆ 남녀전도회 하반기 회계감사 실시

전도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하반기 회계감사를 실시합니다. 각 전도회에서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2004년 1월 첫 주 ~ 2004년 2월 마지막 주	
대상기간: 2003년 7월 ~ 12월	감사장소: 전도위원회(해곡로 6층)
준비서류: 시산표 2부(2003년 1월~12월), 금전출납부, 원장, 영수증철 등	

◆ 에바다부 자막봉사자 모집

제3교육위원회 예비다부에서 매주일 11시 예배, 저녁 찬양예배시 예비다부 동아인을 위
한 자막방송사(한글타자)를 모집합니다!
일시: 2003년 12월 부터 대상: 한글타자 가능 및 재능 유경험자
인원: 2명 이상 문의: 예비다부 ☎552-8200 / 교416)

충현기도의창

- ① 김경관 위임목사로 시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시므로도 통성한 열매를 맺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라, 사탄과 싸움의 진리를 전하라는 정결한 행동으로 만족하여 주소서.
- ② 모든 교역자가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영에 대해 뜨거운 열정과 경건 능력을 소유하게 하소서.
- ③ 집회와 안수집사, 권사와 집사 및 모든 직분자라 진리를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사로 자신을 하나니 앞에 드리기를 힘쓰게 하소서.
- ④ 총회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주어진 5대 목표를 성취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 되게 하소서.
- ⑤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분을 다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함께 지어져 기도 하소서.
- ⑥ 주권별 대안사 전도와 교회 주변 전도를 통하여 교회교회가 민족복음화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성취하는 구원의 등대가 되게 하소서.
- ⑦ 단기전교를 통하여 총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모든 주축과 역할을 향하여 구원의 빛을 전하는 교회로 되게 하여 주소서.

별세

2003년도 제6차 학습 · 세례식

유아세례 : 오늘 오후 3시 갈릴리움
 학습세례식 : 오늘 오후 5시 천양애에 시, 본당
 *해당지는 30분 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700

1. 서문상 군(서명수 집사, 백희숙 권사의 아들/8교구)과 조영옥 양(나경련 권사의 딸, 대광교회)/ 30일 (화) 15:00 갈릴리홀
2. 정하규 군(조필선 씨의 아들)과 이시형 양(이인원 안수집사, 한정희 권사의 딸/8교구)/ 1월 6일 (화) 13:00 강남문화센터 1층 다

1월 주일 및 수요일예배 기도 담당

월	일	주일예배 (장로)					천양예배		수요예배	
		I	II	III	IV	V	장성형	김장영	I	II
1	4	이정우	오진국	이 훈	이경재	강철형	김장영	이근덕	노성환	
	11	정태두	임부천	김종구	김경남	안동현	이철문	조승환	장성현	
	18	차신득	노광헌	강보용	전종렬	이창호	장길남	이수하	최진자	
	25	황영일	안국옥	최우성	이병하	고재술	이훈식	이재하	장길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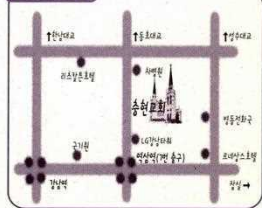
이번주 새벽기도회 담당

	29(월)	30(화)	31(수)	1(목)	2(금)	3(토)	4(주일)
설교자/기도자	나광영/김영수	정진호/엄복섭	고광환/장용희	임현덕/김인희	김영훈/박종하	위건량/김말자	김익환/안태순

예배 담당안내 (12/31~1/4)

날짜	예매	예매 전담인	사 회	기 도	설 계
12/31 12/31	수요일		김진우	김진우	열린 캠페인 (성 5:25-29) 이태원 목사
	수요일		최광문	최광문	심각하기의 길 (16:24-25) 박복희 목사
1/1	신년예배	성당 모두 사임 없이 위해! 김광군(임아주님 찬양대 지휘)	이종대	여건근	그 길로 16:4-9 김성철 목사
1/1	신년예배	주 예수도마니 귀한 것은 없다! 최/소리스! 김진우(이별 찬양대 송도이스트)	이정기	이정기	그 길로 16:4-9 김성철 목사
1/2	교묘집회	특별찬양 (마미유님 장원희/소리스로 조수진)	이원철		참모자(전 3:30) 정현철 목사
1/4	주일 I		최정철	이정우	주의 만찬(전 11:23-24) 최정철 목사
1/4	주일 II	예수기 우리들 부르는 소의 목소리! 김희숙(임아주님 찬양대 송도이스트)	나영영	오진규	주의 만찬(전 11:23-24) 김성철 목사
1/4	주일 III	내 귀를 뜻대로 하! 최/소리스! 김광군(임아주님 찬양대 지휘)	이종대	이 훈	주의 만찬(전 11:23-24) 김성철 목사
1/4	주일 IV	나 위하여 집사자의 목소리! 김진우(이별 찬양대 송도이스트)	이국근	이갑대	주의 만찬(전 11:23-24) 박복희 목사
1/4	주일 V	주 예수도마니 귀한 것은 없다! 최/소리스! 김진우(이별 찬양대 송도이스트)	이태원	김정철	주의 만찬(전 11:23-24) 김성철 목사
1/4	주일장집회		이정철	김정철	누가 이리(전 13:35-39) 김준영 목사

교회 오시는 길



예배 및 집회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예배	I	오전 7:00	본 당
	II	오전 9:00	본 당
	III	오전 11:00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 당
	IV	오후 1: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 당
	V	오후 3:00 (캘빈아카데미 예배)	본 당
전양예배		오후 5:00	본 당
수요일예배		10월 11:00 12월 7:00	본 당
금요일집회		오후 7:00	본 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 당

기도원 안내

집 회	시 간	차 량
화요일집회	오전 11:00	오전 10:00 본당 앞 출발
금요일철야	오후 10:30	금요일집회 후 본당 앞 출발

섬 · 기 · 는 · 분 · 들

■ 위임몰사 김성관

■ 시무장로

김의철 기체원	김호은 고위정책	노광원 고위정책	오건국 에너지	이병환 에너지
최정호	원필성 재정경제	김동호 고위정책	이 훈 재정경제	남상현 재정경제
장준석 교육	김영길 문화체육	홍윤구 문화체육	조인재 문화체육	김종현 문화체육
최무길 국무	강전세 국무	이창호 국무	차신록 국무	김창현 국무
이종식 국무	이병욱 국무	이종욱 국무	임무진 국무	최기환 국무
이갑재 국무	전종훈 국무	전종철 국무	이정우 국무	김정우 국무
황일영 국무	현승규 국무	김영수 국무	김환기 국무	원승우 국무
이현수 국무	안동원 국무	이광진 국무	김구형 국무	박종우 국무
이제인 국무	백덕양 국무	노대식 국무	전태부 국무	이성현 국무
전범욱 국무	조준환 국무	10조준 국무	김익달 국무	7조준 국무
박찬섭 국무	최지윤 국무	노영환 국무	박철구 국무	정경호 국무
신상수 국무	고제술 국무	강철홍 국무	김영은 국무	이대원 국무
강철환 국무	김승곤 국무	함철주 국무	윤석민 국무	정선진 국무
안수현 국무				

■ 부목사

[illegible]